

# 학업중단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의 개인사회적요인과 중단후 경험에 대한 연구

## Individual, Social Factors, and Experience after School Dropout: Differences betwee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Dropout Youth

김선아

승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nah Kim(sunkim@mail.kcu.ac)

### 요약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의 주요 개인, 사회요인들을 비교하고 학업중단후의 경험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전국 209명의 남녀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은 성별, 연령, 지적장애, 노동여부, 친부모동거와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차가 있었다. 사회요인에서는 소속기관, 복학경험, 검정고시합격이 유의미했다. 학업중단후의 경험에는 각 경로, 학업중단 시점, 학업중단 자기평가가 유의미한 차가 있었는데 비행집단이 더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의 직업교육욕구와 비행집단의 복학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비행집단과 일반중단집단에는 개인사회적 요인과 학업중단후의 경험에의 차이에 근거하여 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개입과 정책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과 학업중단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에 대한 개입방안과 대응에 대한 시사점도 논의되었다.

■ 중심어 : | 학업중단 | 비행청소년 | 사회적 자원 | 학업중단후 경험 | 예방 |

### Abstrac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delinquent school-dropout adolescents and general dropouts' differences in individual, social factors and experiences after school dropout.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nationwide survey(N= 209) from dropout adolescents. Findings reveal that gender, age, disabilities, work experience parent cohabitation, and residential area were significant in the individual factor. Dropout time, social agency, school return experience, and GED exam pass were significant in the social factors.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experiences after dropout, and self evaluation while the general group had needs for vocational education. Dropouts wanted to go back to school. Implications such as focusing on differences of each group and developing various education system and policies are neede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 keyword : | School Dropout | Delinquent Adolescent | Social Resource | Experience After Dropout | Prevention |

\*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인 '윤철경·김선아(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새로 분석한 것임.

접수번호 : #120827-004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09일

접수일자 : 2012년 08월 27일

교신저자 : 김선아, e-mail : sunkim@mail.kcu.ac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높은 교육열과 급변하는 교육제도 속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력중심주의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심각한 상황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년 7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학년에는 초중고 총 60,284명의 학생이 여러 사유로 정규학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학업 중단이란, 해당학생에게는 교육기회의 상실, 진로계획의 장애를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상실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에 소속할 위험성과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은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상황이며 이로 인해 실패감, 절망감과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가족문제가 야기된다[3]. 학업중단상태가 계속되면 가족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된다[4].

일반적인 학업중단 청소년문제도 문제지만 그 중 중단과 함께 발생하는 비행문제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의 심각한 문제인 학교폭력도 가해피해 학생들이 비행과 학업중단의 복합문제의 위험한 잠재적 대상이 되며[5], 이들이 성매매 및 성폭력[6], 가출, 폭력, 비행[7], 사회적 범죄 연류비율 증가[8] 등의 심각한 문제에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도 보면 학업중단생들과 고교 졸업생 비교 결과, 중퇴생들이 비행, 마약사용, 판매, 교정제도와 더 연관이 있었고[9], 미국 주교도소 입소자 중 과반수가 정규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를 보면 비행과 학업중단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높아져 일반학업중단연구와는 따로 구체적인 연구로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학업중단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 학업중단청소년들의 중단원인과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11] 예방관련 연구들이 행해졌다[12][13]. 연구내용도 대부분 일반 학업중단생만 대상이어서[14] 복합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비행 학업중단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반 학업중단자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 각 집단의 특서에 따른 구체적인 예방이나 대응대책 마련에 제한점이 있었다.

학업중단과 비행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각각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기 전부터 졸업생들과 다른 점들이 나타난다고도 하고[15], 과거의 비행행동이 학업중단이나 학교이탈의 영향요인으로 보기도 한다[16]. 비행경험친구, 처벌경험친구, 학교결석 등이 중퇴에 영향을 미치고, 중퇴의 직접적인 계기가 비행인 경우도 있었다[17]. 중단을 고려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 가출, 약물, 흡연, 경찰서경험이 많았고 학교요인과 비행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처럼 기존연구들에서 비행과 학업중단의 관계성은 나타나나 구체적으로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들만의 개인, 사회적 요인이나 학업중단이후의 실제경험과 일반 학업중단생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태이다. 실제경험에 대한 연구도[13][19] 일반학업중단에 대한 것이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무비행 학업중단학생과의 경험을 비교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비행학업중단학생과 비행이 없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것은 두 집단의 비교로 복합문제 학업중단생과 일반학업중단생에 대한 개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학업중단학생들이 학업중단 후의 경험에 대한 종적과정의 고찰이 부족한 것은 대상의 접근이 어렵고 응답을 얻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20]. 이런 사유로 비행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후의 경험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부족했는데 관련대상에 대한 적합한 정책과 개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개인, 사회요인들과 학업중단 후의 경험에서 두 집단의 고유특성과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행학업중단집단을 무비행(이하 일반)학업중단집단과 비교하는 이유는 비행의 복합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무비행의 학업중단자와 다른 점을 살펴보기 위함

이며, 그리하여 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특성에 맞는 예방과 개입대책을 논의하고 프로그램개발과 기존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학생들의 개인요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들은 사회적 요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들은 학업중단후의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문헌고찰

### 1. 비행학업중단

학업중단이란 ‘학습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떠나는 사람’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없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1].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 중등청소년의 취학률이 증가하고 비행으로 인한 학교 중도탈락 증가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 학업중단과 관련된 비행행동은 특정한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고[22]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참여를 의미하기도 한다[23]. 일반비행이 고등학교 조기중퇴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24], 비행과 학업중단의 복합적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7][25] 비행관련 없는 일반학업중단생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 2. 학업중단과 개인사회적 요인, 중단후 경험

학업중단과 관련 요인들은 사회체계이론[26]에 의해 개인, 사회 등의 체계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된다. 대표적인 개인요인으로는 성, 나이, 자아인식, 개인 경험, 노동시장참여, 사회적 무력감, 장애 등이 청소년의 학업중단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27][28]. 학업중단할수록 폭력문제와 연관이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29].

그 외에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한 부모 가정, 거주 지역 같은 특성들이 학업중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

요 요인들로 나타난다[30].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등 가족구조에 결손이 있을 때 아동들의 학교 중도 탈락률이 높았고[31] 가족의 낮은 소득수준과 학업중단의 관련성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다[32][33].

사회적 요인으로는 학업중단학생들의 사회적 자원이나 지지가 부족한 경우, 비행이나 학업중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학업중단생들이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비행집단에 속하는 경우도 있었으나[25], 오히려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34]. 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환경이 아동의 학교중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14]. 학업중단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회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망과 적극적인 활용이 나타나기도 했다[35].

학업중단생들의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학업의지와 일정학력 성취 등 진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37]. 복학 외에 검정고시를 선택한 경우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장기간의 학업실패를 경험하고 성공경험도 거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38] 지속적인 학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학업중단청소년들로, 자료는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수집했고[39], 총 20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방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표본 확보가 어려우므로 접근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의도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쉼터, 보호시설, 대안교육시설, 상담지원센터, 병원,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관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19개 전국기관에서 수집했고, 설문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기입이나 면접을 통해 자료수집을 했다.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다른 점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

과 무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분석연구이므로 이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류하고 연구 분석을 실시했다.

##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은 모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변수들을 사용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회에 걸친 현장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무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한 각 문제 집단에 적합한 개인사회적 요인을 따로 선택하고 학업중단후의 경험도 따로 선택해서 분석했다.

### 2.1 개인요인

개인요인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척도를 활용했는데 그 중, 성별, 연령, 노동참여, 학업성적, 지적장애유무, 가족경제상황, 친부모동거여부와 가족거주지를 측정했다. 노동은 '최근 일을 하고 있는가'에 예/아니오로 응답했고, 학업성적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아주 못했다'에서 '아주 잘했다'로 측정했다. 지적장애유무는 지능정서심리상의 장애진단여부를 측정했다. 학생의 가족경제상황은 '매우 못 산다'에서 '매우 잘산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고 친부모와의 동거상태는 친부모와 동거와 동거 안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측정했다. 가족의 거주지는 현재 거주지를 측정했다.

### 2.2 사회적 요인

사회적요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변수를 활용했는데 변수로는 현재 소속기관, 학업 중단 시 고된 상의한 대상, 학교복학여부, 검정고시합격 등을 측정했다. 소속기관은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속할 수 있는 10가지 기관 중에서 택하도록 했고 학업 중단 시 고된의는 대상도 주요 7가지 대상(예: 부모, 담임교사, 친구/선배, 아무도 없다 등)중에서 택하도록 했다. 복학 경험은 예/아니오로 답했고, 검정고시 합격은 전 과목 합격, 부분합격, 불합격으로 측정했다.

### 2.3 학업중단 후의 경험

학업중단에 대한 개인경험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변수를 사용했는데, 비행복합청소년과 무비행(일반)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후의 경험경로, 학업 중단시점, 학업중단 후 자기평가, 하고 싶은 일들을 측정했다. 학업중단이후의 개인 경험 경로는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경험을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보기를 제시하고(예: 아무것도 안함, 직업기술훈련, 대안교육시설, 취업을 위해 학원, 상담치료, 취업, 복학 등) 측정했다. 학업중단시점은 조기형(초등, 중1때 중단), 중기형(중2, 3때), 만기형(고등학교)으로 측정하였고 학업중단의 자기평가는 3점 리커트척도로 '잘했다고 생각한다'에서 '후회한다'고 답해 높을수록 후회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제시된 예시(예: 직업 기술 배우기,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 복학희망 등)중에서 선택해서 측정하도록 했다.

분석방법은 비행학업중단학생과 일반학업중단학생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과 두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 t 검정과 다중응답교차분석을 실시했으며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집단의 의 분류는 보호관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비행집단으로 분류했고 비행경험이 없는 학생을 일반청소년으로 분류해 집단을 나누고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 IV. 분석결과

본 연구응답자들의 기본적 배경으로는 남자가 53.4%, 여자가 46.6%였고 평균연령은 16.5세였다. 현재 거주지역은 47.8%가 서울, 27.3%가 경기, 대전이 10.2%, 광주가 4.4%, 강원이 3.4%, 인천과 전남이 2.9%였고 그 외에 전국에 분포해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상황은 51.2%이 못살거나 매우 못산다고 응답해 과반수이상 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요인 비교

비행 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개인요인 차이는 아래 [표 1]에 나타나듯이 성별, 연령, 지적장애, 노동, 친부모동거상태와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성적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결과, 비행집단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일반집단은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업중단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개인가정요인 집단 비교

변수	비행 무	비행 유	N(%)	통계값	
성별	남	61(55.5)	50(45.0)	111(100)	$\chi^2=4.36^*$
	여	67(69.1)	30(30.9)	97(100)	
연령	평균	16.2	17.1	206	$t(df=204)=-3.85^{***}$
	표준편차	1.62	1.43		
학업성적	평균	2.95	2.83	205	$t(df=203)=.55$
	표준편차	1.56	1.41		
지적장애	없다	77(53.8)	66(46.2)	143(100)	$\chi^2=12.51^{**}$
	있다	51(79.7)	13(20.3)	64(100)	
노동여부	일안함	115(70.6)	48(29.4)	163(100)	$\chi^2=27.74^{**}$
	일함	11(26.2)	31(73.8)	42(100)	
친부모 동거	안함	69(55.6)	55(44.4)	124(100)	$\chi^2=4.75^*$
	동거	58(70.7)	24(29.3)	82(100)	
거주 지역	서울	67(68.4)	31(31.6)	98(100)	$\chi^2=17.57^*$
	강원	5(71.4)	2(28.6)	7(100)	
	대전	10(47.6)	11(52.4)	21(100)	
	인천	5(83.3)	1(16.7)	6(100)	
	경기	24(42.9)	32(57.1)	56(100)	
	광주	7(77.8)	2(22.2)	9(100)	
	전남	5(83.3)	1(16.7)	6(100)	
	충청	0(0)	1(100)	1(100)	
가족 경제	평균	3.30	3.31	209	$t(df=207)=1.02$
	표준편차	1.288	1.265		

\*p<.05, \*\*\*p<.001

연령은 비행청소년이 평균 17.1세, 일반집단은 16.2세로 비행청소년들이 나이가 더 많았다. 지적장애는 두 집단이 없는 쪽이 많았으나, 장애가 있는 학생 중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이 장애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여부는 비행청소년들이 일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두 집단 비교 시 73.8%로 일반집단보다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동거는 두 집단 모두 부모와 동거를 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업중단생들이 부모와 같이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거주지역 차이결과로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비행청소년은 경기도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일반청소년은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경제 상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요인 비교

다음은 학업중단생들의 사회요인들 대한 비교분석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현 소속기관, 복학여부, 검정고시 합격여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소속기관의 결과에서는 비행집단은 보호관찰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집단은 대안학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경험은 전체적으로는 낮았으나 복학한 경우에는 비행집단이 61%로 일반청소년보다 복학비율이 높은 것(39%)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보다 비행청소년이 복학을 더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검정고시합격은 일반집단이 유의미하게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집단보다 실제적인 학업진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업중단 비행과 일반청소년 사회요인비교

변수	비행 무	비행 유	N(%)	통계	
소속 기관	없다	3(100)	0(0)	3(100)	$\chi^2=81.13^{***}$
	검정고시학원	7(50)	7(50)	14(100)	
	대안학교	48(85.7)	8(14.3)	56(100)	
	보호시설	15(51.7)	14(48.3)	29(100)	
	보호관찰소	1(3.0)	32(97)	33(100)	
	상담센터	26(81.3)	6(18.8)	32(100)	
	이동쉼터	6(42.9)	8(57.1)	14(100)	
	청소년종합복지관	9(81.8)	2(18.2)	11(100)	
	자활지원관	10(90.9)	1(9.1)	11(100)	
	취미동아리 모임	1(25.0)	3(75)	4(100)	
	복학 경험	있다	16(39.0)	25(61.0)	
없다		109(67.3)	53(32.7)	162(100)	
검정고시 합격	전 과목 합격	35(77.8)	10(22.2)	45(100)	$\chi^2=10.06^{**}$
	부분 합격	16(59.3)	11(40.7)	27(100)	
	불합격	6(36.5)	11(64.7)	17(100)	

\*\*\*p<.001

다음 사회적으로요인으로는 학업 중단 시 고민상담했던 대상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아래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학업 중단 시 고민

상담을 했던 대상결과는 비행집단은 13.5%가 ‘아무도 없다’고 가장 많이 대답했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10.4%로 나타났다. ‘담임과 상담교사’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19.1%로 가장 많았으나, 두 번째 답으로는 ‘아무도 없다’, 그 다음은 ‘친구/선배’ 순으로 나타나, 비행집단은 상담할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거나 부족했고 일반집단도 부모님이 1 순위였지만 역시 고민을 나눌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비행유무별 고민 상담 대상에 대한 다중응답 교차분석 (N(%))

비행	부모	담임교사	학교 상담교사	상담사	친구 선배	없음	기타	합계
무	44 (19.1)	11 (4.8)	4 (1.7)	11 (4.8)	29 (12.6)	37 (16.1)	7 (3.0)	143 (62.2)
유	24 (10.4)	7 (3.0)	0(0)	3 (1.3)	20 (8.7)	31 (13.5)	2 (.9)	87 (37.8)
합계	68 (29.6)	18 (7.8)	4 (1.7)	14 (6.1)	49 (21.3)	68 (29.6)	9 (3.9)	230 (100.0)

### 3. 비행학업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중단후 경험 비교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친 주요 경험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보면, 첫 번째 경험과 둘째 경험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업중단 후 처음 경험결과는 비행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높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비행집단은 그 다음 순위로 보호관찰이 많았던 반면에 일반집단은 취업, 진학교육으로 교육관련 경험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경험경로 결과는 비행집단이 취업진학 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전일취업이었다. 일반집단도 두 번째 경험으로 취업 진학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많은 경험으로는 비행집단은 보호관찰, 일반집단은 상담치료로 나타나 일반집단은 비행집단과는 약간 다르면서 더 다양한 경험경로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행유무별 학업중단후 첫째, 둘째 경험경로 차이분석

변수	첫째 경험			둘째 경험		
	비행 무	비행 유	N(%)	비행 무	비행 유	N(%)
높았다	84(66.7)	42(33.3)	126(100)	18(71.9)	6(28.1)	24(100)
취업/진학 교육	30(69.8)	13(30.2)	43(100)	39(66.1)	20(33.9)	59(100)
상담치료	6(75.0)	2(25)	8(100)	23(71.9)	9(28.1)	32(100)
보호관찰	0(0)	16(100)	16(100)	0(0)	17(100)	17(100)
시간/전일 취업	4(44.4)	5(55.6)	9(100)	26(59.1)	18(40.9)	44(100)
학교복학	0(0)	1(100)	1(100)	6(60.)	4(40)	10(100)
기타	2(50)	2(50)	4(100)	3(60)	2(40)	5(100)
통계값	$\chi^2=31.54^{***}$			$\chi^2=30.61^{***}$		

\*\*\*p<.001

그 외의 학업중단후 경험에 대한 결과를 [표 5]에서 보면, 학업중단 시점과 자기평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시점은 비행집단이 만기형(고등학교 1~3학년)이 가장 많았고, 조기형(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 적었다. 일반집단도 만기형이 가장 많았으나 중기형(중학교 2~3학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만기형이 더 많았는데 일반집단에서 조기형이 비행집단보다 비율이 높았다. 학업중단에 대한 자기평가는 비행집단이 일반집단보다 후회한다는 평균점수가 더 높아 비행청소년으로 학업중단을 했어도 후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학업중단청소년 비행유무별 경험분석

변수	비행 무	비행 유	N(%)	통계값
학업중단시점	조기형	41(87.2)	6(12.8)	$\chi^2=19.43^{***}$
	중기형	32(47.1)	36(52.9)	
	만기형	55(58.5)	39(41.5)	
학업중단자기평가	평균	1.91	2.44	203
	표준편차	.744	.615	
통계값				$t(df=201)=-5.30^{***}$

\*\*\*p<.001

다음은 중단 후 하고픈 일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직업기술 학습과 복학이 유의미했다. 앞으로 직업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일반학생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복학욕구도 유의미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니라 비율이 높았으나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는 비행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높아 일반학생보다 복학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비행유무별 학업중단후 하고 싶은 일 비교

변수	비행 무	비행 유	N(%)	통계값	
직업기술	예	27(50.9)	26(49.1)	53(100)	$\chi^2=3.17$ *
	아니오	101(64.7)	55(35.3)	156(100)	
복학	예	13(39.4)	20(60.6)	33(100)	$\chi^2=8.13$ ***
	아니오	115(65.7)	60(34.3)	175(100)	
나은 직장취직	예	19(70.4)	8(29.6)	27(100)	$\chi^2=.95$
	아니오	109(60.6)	71(39.4)	180(100)	

\*p<.05, \*\*\*p<.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 학업중단청소년의 주요 개인, 사회적요인, 학업중단 후의 경험을 중심으로 집단 간 차이점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들의 결과, 성별, 연령, 지적장애, 노동, 친부모동거와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비행집단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과 학업중단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40]와 일치해 비행남자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학업중단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일반집단은 여자들의 비율이 높아, 비행이 없는 학업중단청소년은 여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부분으로 [20] 비행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여학생들의 학업중단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도 높을수록 학업중단위험요인이 된다는 기존연구[28]와 비슷해, 고등학교 중퇴생들이 졸업생보다 범죄 가담율이 높았다는 연구[9]와도 일치한다. 이는 비행학업중단학생들은 높은 연령이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비행과 학업중단은 고등학교시기가 핵심적인 시기라는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41] 이 시점의 청소년들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는 일반적으로 적었으나 있다고 답한 학생에서는 일반학생들이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비행아동들이 지적장애와 더 연관이 높다는 연구와는 좀 다른 결과이다[42].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이어서 보통 비행청소년들과는 다른 결과인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업중단생들에서 장애가 더

많은 것은 현재는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장애와 관련된 비행관계성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43].

노동결과는 비행 학업중단생들이 노동에 더 참여하는 것은 기존학업중단연구와 비슷하다[44]. 학업중단생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활비 부족의 경제적 사유가 높고 유해한 불법업종에 많이 관여하게 된다[21]. 비행청소년은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이 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유추된다. 이 집단이 경제적인 필요로 노동시장과 더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도 많을 것이라 보고 본다.

친부모 동거는 두 집단 모두 부모와 동거를 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생들이 친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심리적, 실제적 자원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구조 문제가 학업중단을 높이고[31] 비행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이전 연구들과[45] 비슷한 결과인데, 이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 내의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청소년은 다양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비행청소년은 경인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가족의 거주지역 사회의 영향[46]이 높다고 한 것처럼 이것이 도시나 지역특성이나 거주지역의 영향이 높은 것이라 추정되나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요인 결과에 의하면 예방이나 정책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은 비행학업중단학생이 남자이고 고연령이거나 노동의 특징을 더 가지므로 비행학업중단생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 시 이 특성들을 포함시켜야한다고 본다. 일반집단은 여자와 장애여부가 높았는데 이런 각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개인의 가족구조에서도 비행학업중단생은 결핍이 있는 배경 많으므로[27] 일반학업중단생과 함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부모 상담서비스, 가족치료 등을 학업중단 가정들에게 제공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부모가정 등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들이 있으나 각 배경마다 다르므로, 가족배경으로 학업이 어려운 경우는 장학금 혜택의 확대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통신교육 연계·지원도 해야 한다.

둘째, 사회요인들의 결과로는 소속기관, 복학경험, 검정고시합격이 집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은 두 집단의 사회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행집단은 보호관찰소가 가장 많아 일상의 제한이 많은 반면, 일반집단은 대안학교로 학업도 대체수단을 활발히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상들이 학교제도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역할과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므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대상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지원을 늘린다면 효과적인 개입과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복학경험은 비행학업중단생들이 일반집단보다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학업의지와 일정학력 성취 등 진로 욕구가 있다는 기존연구[37]와 비슷해 비행학생들의 정규교육제도에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학업중단을 했어도 비행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상황일수도 있으므로 학교에 재적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복학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의 구성이 아주 필요하다.

검정고시 합격여부는 일반청소년이 높아 실제적으로 일반청소년들이 비행집단보다 더 학업진로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학생들은 보호관찰 등 법적인 제도와 관련되어 시험에만 매진하기 어려운 반면에 [20] 일반학생들은 비행과 관계가 없어 대안학교나 다른 교육기회를 통해 시험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가 있으므로, 비행집단도 검정고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야 할 것이다.

사회요인 중 ‘고민을 나누는 대상’ 결과는 비행집단은 ‘아무도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해 개인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부모였지만, 한창 도움이 필요한 취약집단이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빈도가 일반집단보다 적은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는 청소년기에 사회적 지지망과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연구에 근거할 때[35] 비행집단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많이 부족해 위험요인이 되며 속히 대처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요인측면에서 비행학업중단집단은 의지할 개인의 사회자원이 부족하므로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더 다양한 사회적 자원

의 지원체계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자원접근성이 열악하므로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업이나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교전학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지원과 또래상담이나 멘토링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서 예방차원까지 개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후의 경험은 집단별로 유의미했고, 학업중단 시점, 학업중단에 대한 자기평가, 직업기술배우기와 복학욕구가 유의미했다.

첫째 경험에서는 두 집단 모두 논다고 하다가 비행집단은 보호관찰경험이 높았지만 일반집단은 취업·진학교육을 주로 경험해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경로가 달라졌다. 둘째 경험은 두 집단 다 취업교육, 취직을 경험했는데 일반집단은 상담치료도 받아, 비행집단보다 더 다양한 경험경로와 치료관련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학업중단학생이 취업관련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전 연구와 비슷하다[47]. 그러나 비행집단의 경우, 긍정적 사회자원이 적고 보다 쉽게 비행친구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4] 바람직한 진로를 위해 징벌체계가 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시점 결과는 두 집단 다 만기형이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비행집단은 중기형, 일반집단은 조기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형은 고등학생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최근 연구결과[48]와 일치해 고연령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 학업중단생에서 조기형이 많은 것은 초등학교 어학연수나 해외 유학 등의 이유도 있고[1] 대인관계 부적응(차별대우, 왕따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조기중퇴로도 추측된다. 비행집단은 중고등학교가 위험시기로 나타나, 예방사업의 경우, 이 시기 전부터 개입을 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학업중단에 대한 자기평가는 비행집단에서 더 후회한다는 결과는 복학처럼 이들의 학업에 대한 진로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가정된다. 이는 이전 연구[35]와도 비슷한데, 비행학생이 학업중단을 했어도 학업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집단에 대해서 더 학업을 포



기했다는 편견 없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하고픈 일에서는 직업기술배우기가 일반집단이 조금 더 높았고, 비행집단은 복학욕구가 더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직업교육과 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존연구처럼[49]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났으므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관련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적인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사이트나 체계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비행집단의 복학욕구가 높은 결과는 학교를 떠나도 학업욕구는 계속 있다는 희망적인 면이다. 욕구가 있어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복학이 쉽지 않기 때문에 [4] 비행 학업중단학생들에게는 복학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들에 대한 궁극적인 정책적인 면은 집단별로 결과가 다른 점에 근거하여 집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로, 일반집단의 직업기술교육욕구와 비행집단의 복학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이나 준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시설이나 적극적 학교복학 절차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방의 측면에서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CYS-net, 비행예방센터 등과 상담치료 연계·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의 대처를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과 일반(무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차이를 개인, 사회적으로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각 집단별로 그 차이점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학업중단집단도 문제행동에 따라 집단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제한점으로는 기존 연구 자료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변수와 측정이 다양하지 못해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차후연구에는 좀 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중단연구로 연구한다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 [2] 이숙영, 남상인, *중도탈락생의 사회적 상담 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
- [3]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2호, pp.225-241, 2010.
- [4] 최영신, *비행청소년의 학교재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5]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제148권,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 [6] 성윤숙, 박병식,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 [7]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학교 밖 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8] 한국청소년상담원, *맞춤형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 [9] J. A. Fagan and E. Pabon, “Contributions of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to school dropout,” *Youth and Society*, Vol.21, pp.306-354, 1990.
- [10] C. Harlow, *Education and Correctional Population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 [11] 김순규,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논집*, 제28권, 제3호, pp.21-39, 2002.
- [12] 조아미,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2호, pp.1-22, 2002.
- [13] 정연순, 이미경,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제35권, 제1호, pp.79-102, 2008.

- [14] 박재은, 정슬기, “청소년 학교중퇴의도 영향요인: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 pp.5-29, 2011.
- [15] G. Sweeten, S. D. Bushway, and R. Paternoster, “Does dropping out of school mean dropping into delinquency?,” *Criminology*, Vol.47, pp.47-91, 2009.
- [16]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3권, 제1호, pp.1-41, 2007.
-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18] 박창남, *중도탈락 청소년 종합대책, 중도탈락 청소년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공정회 자료집. pp.19-39, 2001.
- [19] 성윤숙,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95-343, 2005.
- [20] 이시형, 박현선, 이세용, *청소년의 학업중퇴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2.
- [21] 이경상, 조혜영, 박창남,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22] M. D. Newcomb and T. B. Loeb, “Poor parenting as an adult problem behavior: General deviance, deviant attitudes, inadequate family support and bonding, or just bad parents?,” *J. of Family Psychology*, Vol.13, pp.175-193, 1999.
- [23] 원혜옥, “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의 유형 및 대처방안”, 형사정책, 제132권, pp.217-241, 2001.
- [24] S. R. Battin-Pearson, M. D. Newcomb, R. D. Abbott, K. G. Hill, R. F. Catalano, and J. D. Hawkins, “Predictors of early high school dropout: A test of five theories,”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2, pp.568-582, 2000.
- [25] J. Staff and D. A. Kreager, “Too cool for school?: violence, peer status and high school dropout,” *Social Forces*, Vol.87, pp.445-447, 2008.
- [26] K. C. Bausch, *The Emerging Consensus in Social Systems Theory*. Springer, NY, 2001.
- [27] 김지혜, 안치민,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133-157, 2006.
- [28] B. S. Rosenthal, “Nonschool correlates of drop-out: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Vol.20, No.5, pp.413-433, 1998.
- [29] G. R. Jarjoura, “The conditional effect of social class on the dropout- delinquency relationship,” *J.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33, pp.232-255, 1996.
- [30] J. Huisman, and J. Smits, *Keeping children in school: Household and district level determinants of school drop out in 322 districts of 30 developing countries*. Nimegen Center for Economics (NiCE Working Paper 09-105, 2009.
- [31] 유성경, 이소래,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회의 광장, 1998.
- [32] 구자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309-330, 2003.
- [33] M. D. Newcomb, R. D. Abbott, R. F. Catalano, J. D. Hawkins, S. Battin-Pearson, and K. Hill, “Mediational and deviance theories of late high school failure: process roles of structural strains, academic competence, and general versus specific problem behaviors,”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9, No.2, pp.172-186, 2002.
- [34]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 *경기도 실업계 고교 학생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 경기도

교육청, 2001.

[35]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9권, 제2호, pp.125-154, 2011.

[36] 조영승, 구분용, 신현숙,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청, 2001.

[3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38] 최동선, 이상준,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39] 윤철경, 김선아, 학업중단 현황 심층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2010 정책연구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0.

[40] M. D. Newcomb, “Problem behavior theory and perhaps a little beyond. [Review of the book Beyond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Contemporary Psychology, Vol.38, pp.895-898, 1993.

[41] R. N. Cassell, “A high school drop-out prevention program for the at-risk sophomore students,” Education, Vol.123, No.4, pp.649-658, 2003.

[42] P. Puritz and M. An Scali, “Beyond the walls: Improving conditions of confinement for youth in custody,” OJJDP Report, Jan, 1998.

[43] R. W. Rumberger,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s and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 Vol.32, No.3, pp.583-625, 1995.

[44] 박창남, 도종수,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207-238, 2003.

[45] R. Scragg and M. Laugesen, “Influence of smoking by family and best friend on adolescent tobacco smoking: results from the 2002 New Zealand national survey of year 10 stud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 of

Public Health, Vol.31, No.3, pp.217-223, 2007.

[46] 고미숙, 중학생의 중퇴 원인 기작과 원인귀속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7] 한국교육개발원,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 2002.

[4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49] 이경상, 박창남,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265-289, 2006.

저 자 소 개

김 선 아(Sunah Kim)

정희원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5년 1월 :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 Social Work, 아동복지(사회복지석사)

- 2000년 6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Social Welfare (철학박사)
  - 2002년 2월 ~ 현재 :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정신건강 프로그램, 평생교육, 원격콘텐츠개발